SEOUL
NATIONAL
UNIVERSITY

2027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북한이탈주민)

2027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미래의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SNU Photo Gallery

돌이켜보면 제가 입시 과정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못해도 돼'였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더 잘해야 한다.", "성적을 올려야 한다."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고, 저 역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수험생활을 모두 마무리하고 나서 보니,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미워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못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학 입시는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입시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목표했던 대학에 합격한다면 물론 기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대학교는 여러분에게 경험의 기회와 배움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깨달음의 내용까지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떤 곳에 있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녹슬지 않게 윤을 내는 부지런함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에 빛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욱 밝은 빛을 내려고 욕심내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를 치르다 보면 지치고 고된 순간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을 탓하고, 스스로에 대한 미움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가져 보기를 권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 독서하는 것, 일기를 쓰는 것,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머리 아픈 공부에서 한발짝 물러나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세요.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태하거나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공부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하는 것이지, 공부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와의 대화를 통해 응어리를 풀고, '나'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입시가 끝난 후 돌이켜보니,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것은 결과보단 오히려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원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해 낙담했던 경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고, 절망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성취를 이뤄낸 후에도 오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험을 '실패'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실패는 여러분의 경험이 가진 입체적인 모습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평가에 자신을 끼워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경험하고 많이 느끼면서, 유일무이한 자신만의 청춘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정진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문대학 재학생 C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선배의 조언 중에서

CONTENTS

01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11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 드립니다 12

02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14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14
·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15
· 학생부종합전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16

03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방법

· 서류평가 안내 18
· 면접 안내 25

04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36
·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 39
·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42

05

선배들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 세상을 다채롭게 보기 위한 공부 46
· 과목 선택, 진로 적합성이라는 말에 자신을 가두지 말기 48
· 내게 주어진 활동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활동 55
· 면접, 내 생각을 면접 위원과 공유하기 57
· **내 삶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독서** 60

06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 온 학생을 기다립니다 62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69
· 아로리 사용 설명서 72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Photo Gallery

01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학문공동체'

이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지향점입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류의 삶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우리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장차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미래형 인재는 물론 공동체 의식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역량이 우수한 학생
-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우수한 학업역량과 적극적인 학업태도,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미래형 인재'나 '공동체 의식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리더'와 같은 표현이 다소 거창하여 구체적인 모습이 쉽게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멀리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수능 몇 점 또는 내신 몇 점의 점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하고 전인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가져 보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워온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우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전형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가 2027학년도에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수시모집

·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
·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_사회통합)
· 실기위주전형(일반전형_음악대학 피아노과, 관현악과)

정시모집

·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
·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 수능위주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_농어촌 · 저소득)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_특수 · 북한)

위 전형 가운데 수시모집의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음악대학 피아노과, 관현악과 제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과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은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각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 명칭	전형 소개	전형 요소*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다양한 지역적, 사회 · 경제적 배경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수시모집	일반전형	학업역량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수시모집	기회균형 특별전형 (사회통합)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역적, 경제적, 개인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 정신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 저소득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자, 농생명계열 고교졸업예정자(농업생명과학대학)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정시모집	기회균형 특별전형 (특수 · 북한)	장애로 인해 학업을 수행하는 데 대학의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평가 또는 적성·인성면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학생부종합전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방식을 준비하여 2002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평가체계와 평가인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바람직한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류의 삶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우리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전환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적인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의의는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2027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이 변화했다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앞서 확인했던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교육목표에 맞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자원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로 선택을 위한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고 원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과목인데 소수의 학생들만 선택해 평가에서 불리할까 두려우시다면 한 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발전하게 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공되는 교육 자원이 부족하고 선택의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교육 중심의 대학 입학전형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대학이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2026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동시에 고등학교 현장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시기는 2028학년도이지만, 서울대학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1 · 2학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설계하고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과목 체계와 성적 평가 방식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가능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으며, 기존의 9등급 평가 체계가 5등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5등급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 과목 평균 석차 등급이 1.00이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말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발표한 지난 1년 간의 학업 성취 분석 자료를 통해 새로운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학생의 성장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발맞춰 서울대학교는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연계하는 입학전형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한 역량 그대로가 대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영역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학습활동 과정이 자연스럽게 대입 준비 과정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대입 체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리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중 하나는 입학전형의 안정적인 운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 서울대학교가 오랫동안 지켜온 학교 교육 중심의 평가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에 임하면 됩니다. 나 자신과 내 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교 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깊이 있게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 보시고,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기회가 찾아온다면 용기 있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선 내게 익숙하고 안락함을 선사하는 선택보다는, 조금 어려워도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서울대학교는 변함없이 학교 교육 중심의 대학 입학전형 운영을 통해 교육 체계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 · 학생 · 학부모, 그리고 대학이 함께 손을 맞잡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방법

서류평가 안내

면접 안내

서류평가 안내

✔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에서는 서류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1차 선발하여 면접 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의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28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약 110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므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업역량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주어진 여건에서 교과 및 학업관련 활동의 성취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과제수행 능력 등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업태도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의,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탐색의지 등의 학업 소양을 평가합니다.

학업 외 소양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
학교생활을 통해 드러난 개인의 품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학업역량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역량,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역량입니다.** 학생의 학업역량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역량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학업 관련 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역량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평가 기준	·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성취가 고르게 나타나는가? ·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의미 있는 학습경험은 무엇이었는가? ·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교과 성적

교과 성적 지표는 학생의 학업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과성취도를 파악할 때에는 교과 성적을 공식으로 수치화하여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우, 교과성취도는 지원자의 학업역량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과목별 반영 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자가 3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성적과 수강자가 20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학년별 성적 변화, 선택 과목 특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정확하게 학업역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학년	학기	과목	학점 (이수단위)	등급	인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1	1	○○○	4	1	300	98	71.2	15.4
2	2	○○○	4	3	20	94	89.2	4.6
3	1	○○○	4	A	-	-	-	-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학생의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가 잘 나타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토론, 발표, 실험 등),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이지 못했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수학 교과 중에서도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등의 학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 수학반'이 항상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 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 ·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이 종합적으로 기재됩니다. 기재된 내용 중 학생의 학습에 관한 내용은 학생의 전반적인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학업태도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과목 선택의 적극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교과학습뿐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활동, 실험 수업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업태도를 보여 왔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지원자가 학업 기회를 찾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인다면 지원자의 학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 배움을 위해 주어진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 진로 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확인되는가?

● 학업 외 소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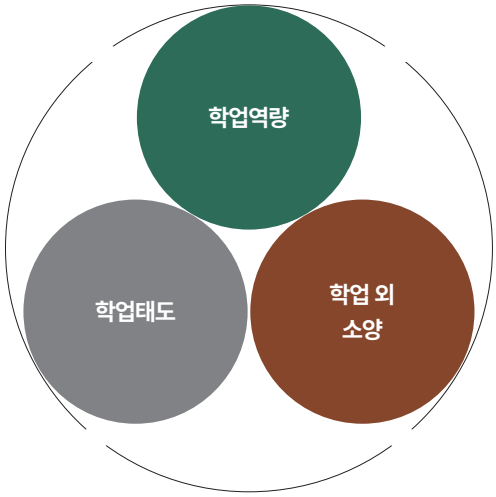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품뿐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내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원 활동 경력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횟수보다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기준	
	·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 학교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 어떻게 평가하나요

종합평가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역량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 교과이수현황, 교과성취수준(정성평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별 학습활동 및 과제 수행 내용) ·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관련 동아리활동, 탐구활동 등)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교과이수현황 (위계에 따른 과목 선택 노력)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업 참여도 및 태도) ·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학내 활동 등 참여도 및 노력)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및 자율활동에서 드러난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 의식, 배려심 등)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출결상황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 과정에서 크게 학생의 학업역량과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때, 한 종류의 항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갖춘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업 참여도와 과목 선택 내역, 교내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업 관련 학내 활동 참여 노력 등 제출서류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특정 부분만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성취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가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은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서울대학교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를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다수의 평가자가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형 준비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협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주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는 28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단과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110여 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참여하며, 총 4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은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해당 모집단위의 전년도 선발 결과 분석 및 전년도 지원 사례 분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평가에서는 전임입학사정관 두 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이후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지원자들의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그 결과가 이전 단계 평가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전임입학사정관은 평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매년 많은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입학사정관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학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데이터 분석, 교사 간담회, 교육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우수성 지표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비단계

STEP. 1

전임입학사정관 평가

1차 평가

전임입학사정관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 의견, 면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2차 평가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다른 전임입학사정관이 1차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STEP. 2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정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한 1단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검토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 2차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대학입학전형운영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TEP. 3

위촉입학사정관 평가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해당 모집단위에 적합한 인재인지 평가합니다.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해당 모집단위 위촉입학사정관이 평가하며, 1, 2차 평가를 담당한 전임입학사정관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STEP. 4

최종 평가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3단계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면접 안내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는 면접,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바탕
기본적인 학업소양 확인

·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 수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
(특수 · 북한)

서류 기반 | **제시문 활용**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 수시모집 일반전형

● 서류 기반 면접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의 면접 대상자와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지원자 모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가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 등을 확인합니다.

평가방법	면접 시간	평가내용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	10분 내외 (의과대학 60분 내외)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면접실로 이동하여 서류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대기실
수험생 확인 및 안내

→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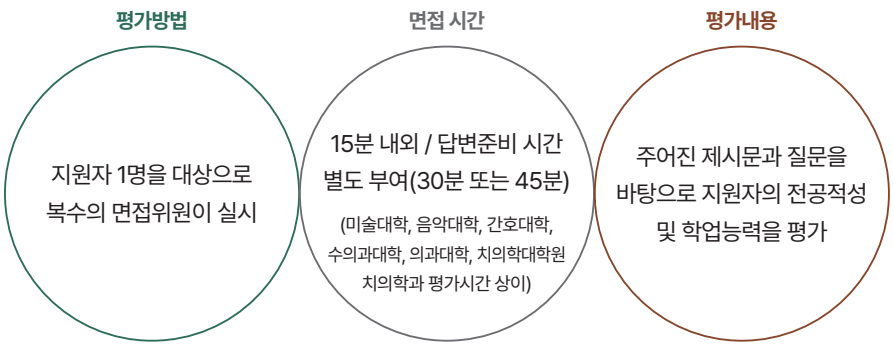
면접실
서류 기반 면접 진행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면접을 위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답변하는 기술과 태도를 측정하는 면접이 아니므로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기보다는 평소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대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위원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학교에서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는 연습이 면접 당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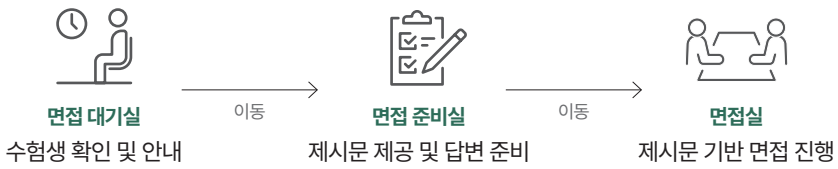
● 제시문 활용 면접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 문항이 사용됩니다.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들에게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되고 모집단위별 30분/45분 동안 답변을 준비합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됩니다. <2027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모집단위(단과대학, 학부, 학과 등)별로 평가되는 분야나 과목을 제시하였으며, 각 모집단위별로 안내된 분야의 제시문과 문항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전공적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순서에 따라 면접 준비실로 이동하여 제공된 제시문의 답변을 준비합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면접실로 이동하여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집단위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위			평가내용		시간 답변 준비	시간 면접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유형 ①~③ 중 택1	① 인문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15분 내외
				②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③ 수학(인문),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인문대학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경제학부 제외)					
	경제학부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45분 내외	
	통계학과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 물리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천문학전공				
	화학부		·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생명과학부		·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지구환경과학부		유형 ①~③ 중 택1	① 물리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②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③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경영대학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공과대학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45분 내외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식물생산과학부		·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45분 내외	
	산림과학부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응용생물화학부		유형 ①~② 중 택1	①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②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유형 ①~② 중 택1	①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②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모집단위			평가내용	시간 답변준비	시간 면접
사범대학	교육학과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15분 내외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45분 내외	
	물리교육과		· 물리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화학교육과		·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생물교육과		·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지구과학교육과		·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 전공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아동가족학 전공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식품영양학과		유형 ①~② 중 택1 ①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45분 내외	
	의류학과		②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약학대학	약학계열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 평가	45분 내외	
첨단융합학부					

[제시문별 출제 범위]

수학(인문)	수학,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수학(자연)	수학,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물리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I, 물리학II
화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화학I, 화학II
생명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지구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지구과학I, 지구과학II

[인문학 · 사회과학]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제시문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는 답변 준비시간 30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답 여부보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력, 논리력 등이며 전반적인 학업소양에 중점을 두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번역 텍스트는 마치 이것이 번역자의 모국어로 쓰인 원작처럼 읽히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의 착시 현상은 번역물 특유의 어색한 문체적 특징이 지워지고 유려하게 읽힐 때 발생하므로 긍정적인 것이다. 번역은 번역가가 제 언어로 창조한 글처럼 막힘없이 흘러갈 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인문학자 돌레가 1540년에 발표한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제대로 번역하는 법>에서 제시한 원칙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글에서 그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들에게 두 가지의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굴종적인 작업을 하지 말 것. 둘째, 라틴어에서 들어온 고어를 피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할 것.

(나) 나는 번역 작품을 읽는 것이 외국 여행을 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이국성, 다시 말해 외국 냄새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완전히 귀화한 번역문이란 없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허울만 그러할 뿐이어서, 엄격하게 따지면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번역은 모름지기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는 알기 쉽게 번역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원작의 자태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알기 쉽게 하는 것과 모순된다. 눈에 선 것이다. 상대가 서양 도깨비인 만큼 누구 눈에라도 설게 되어 있다. 알아보기 쉽도록 손을 쓰더라도 옷차림 정도나 바꿀 수 있을 뿐, 콧대를 깎아 낮추거나 눈동자를 후벼 내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읽기에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 차라리 낫다고 보는 것이다.

(다) 번역가의 과제는 이국의 언어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언어의 음성, 운율, 표현적 특성과 같은 이질적 요소들이 번역을 통해 모국어 안에 새롭게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가의 모국어는 확장되고 심화된다. 번역이 타자를 향해 열린 언어 활동이자 제 언어를 더 풍요롭게 가꾸어 내고 경직성에서 해방시킬 새로운 출발점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에서 확장되는 것은 번역가의 모국어만이 아니다. 원문 속에 잠재해 있던 의미, 연관성, 이미지가 번역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다. 번역이라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존재했었는지조차 몰랐을 잠재성들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가는 창조자이자 예술가이다. 이때 번역의 창조적 성격은 원문을 완전히 벗어나 번역가가 펼치는 언어의 유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번역의 창조성은 원어와 번역어 모두의 언어적 잠재성을 해방시키는데서 온다.

[문제 1] (가), (나), (다)의 필자가 번역에 대해 가지는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한 후, 자신의 독서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히시오.

[문제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가), (나), (다)의 입장 차이가 역사 해석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 역사 해석은 번역 과정과 평행적이다. 과거의 역사를 원문에, 그것의 해석을 번역문에 대응시켜 볼 수 있다. 번역가가 저마다 다른 번역 태도를 취하듯 역사가도 역사를 해석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수학 · 과학]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며 수학, 과학 교과 제시문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는 답변 준비시간 45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2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문제 3] 수직선 위에 세 공 P, Q, R이 $p_1=1$, $q_1=2$, $r_1=3$에 각각 놓여있고, 각 공에는 $x_1=3$, $y_1=2$, $z_1=1$이 쓰여있다. 세 공 P, Q, R에 대해 다음 시행을 반복한다. 아래 시행에서 h는 양수이다. (단, 공의 크기는 무시한다.)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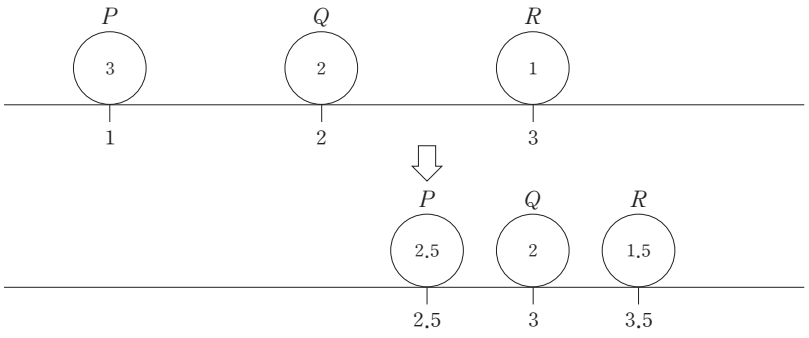
(가) 세 공에 쓰여있는 수들의 평균을 계산한다.

(나) P에 쓰여있는 수에 h를 곱한 값과 P의 현재 위치를 더한 값으로 P의 위치를 옮긴다.

(다) (가)에서 계산한 평균에서 P에 쓰여있는 수를 뺀 값에 h를 곱한다. 그 결과와 현재 P에 쓰여 있는 수를 더한 값을 P에 고쳐 적는다.

(라) P 대신 Q와 R에 대해서도 (나)와 (다)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여 공의 위치와 쓰여있는 수를 바꾼다.

시행을 n번 반복한 후 P, Q, R의 위치를 각각 p_{n+1}, q_{n+1}, r_{n+1}이라 하고, 각 공에 쓰여있는 수를 x_{n+1}, y_{n+1}, z_{n+1}이라 하자. 아래 그림은 $h=0.5$인 경우, 첫 번째 시행을 하기 전과 후의 공의 위치와 쓰여있는 수에 대한 예시이다.



3-1. 시행을 2회 반복한 후 세 공에 쓰여있는 수 x_3, y_3, z_3의 평균을 구하시오.

3-2. 시행을 2023회 반복한 후 공 P에 쓰여있는 수 x_{2024}를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3-3. 시행을 2023회 반복한 후 공들의 위치가 $r_{2024} \le q_{2024} \le p_{2024}$를 만족하도록 하는 양수 h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적성 · 인성]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단위에서는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 소양,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 진행됩니다.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단위	평가내용 및 방법
미술대학 디자인과	·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 및 학업역량을 평가함 · 서류평가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질의 · 답변준비 시간(없음), 면접 시간(15분 내외)
음악대학 국악과	· 서류평가 자료, 한국음악이론과 서양음악이론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질의를 통해 음악적 소양 등을 평가함 · 답변준비 시간(없음), 면접 시간(10분 내외)
간호대학	· 간호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함(3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수의과대학	· 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 다양한 상황 제시와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함 · 면접실당 10분씩 총 5개 면접실에서 진행함(5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의과대학	·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함(6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 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 다양한 상황 제시와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함 · 면접실당 10분씩 총 4개 면접실에서 진행함(4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예시 3

202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적성 · 인성 면접

[제시문 1] 수의과대학

인류는 동물의 품종 개량을 통하여 유전자 변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였다. 반려동물의 대표로 자리매김한 개의 경우, 야생 늑대의 잔인한 성향이 가축화를 통하여 반려동물에 적합하게 개량되었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는 사육 돼지로 개량되면서 인류에게 양질의 고기를 제공하게 되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아져서 치사율 100%에 근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가축화를 통한 유전자의 변이는 동물에게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시문 2] 의과대학

우리가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언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언어는 단순히 사전에 정의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언어는 고정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집합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과 목적 안에서 기능하는 도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리하다'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사람이나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작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 방식에 의해 '요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언어의 의미는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언어는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설명하고, 질문하고, 명령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모든 언어 활동은 특정한 규칙과 맥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어는 단순히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제시문 3]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모두 갖추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던 갓난아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한다. 이처럼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은 사회화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규범을 알고 사회적 존재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자아 정체성과 인성을 형성해 간다.

-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 · 문화』 교과서

모집단위별로 평가되는 분야와 과목은 <2027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함께 안내해 드리지 못한 전체 모집단위의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와 웹진 '아로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역량을 길러온 학생들의 학업소양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습 과정 속에서 관련 도서도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제 등 학습활동을 하면서 더욱 깊이있는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다소 깊이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활동을 성실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면접 및 구술고사 준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독서와 각 교과목의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수한 학업소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과학 분야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도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다뤄보거나 관련 이론 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 연습을 해 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수업 내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만들어 친구들과 토론 학습을 해 보는 경험,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고등학생 수준에서 과제를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활동 등도 각 교과목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본인의 학업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04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미래의 서울대 학생 여러분, 그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여기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각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며, '학교생활기록부'는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이 있는 그대로 기록된 자료입니다. 이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전형이므로, 무엇보다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관심사를 찾아 공부하는 저의 모습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연스레 묻어났기에, 나아가 서울대학교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었기에 미학과를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밝은 등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 - 인문대학 미학과 K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재학생 K의 생각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에 임하면 됩니다. 나 자신과 나의 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교 안의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마음껏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자신의 학업역량을 드러낼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그럴듯한 활동을 채우기 위해 애써 노력하거나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없을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므로 학생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3년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 교과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 탐구와 사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 교과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자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교과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의 실력과 역량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서적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비 학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탐구활동, 모둠 수행 과제, 토론활동, 글쓰기 등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소양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양한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땀과 열정을 나누다보면 여러분의 성장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활동 기회는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업활동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력해 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얼마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입니다.

✔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나요?**
-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 **문제풀이 요령보다 내용 이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하세요.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전에 다뤘던 교과 내용도 참고해 보며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연습으로 충실하게 지식을 쌓아가세요.

내게 중요한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에 더 노력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계획을 세워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는 대학생활을 넘어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양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식이나 학문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지적 균형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여러분의 멋진 미래입니다.

✔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활동, 주제탐구 활동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서류평가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지원자의 의미 있는 독서경험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독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독서활동목록과 자기소개서가 없어도 지원자들이 독서를 통해 쌓아 올린 지적인 역량은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책은 여전히 중요한 배움의 도구이며 독서로 쌓아 올린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 *감히 이렇게 말해볼까요. 서울대학교는 어느 학교보다도 책 읽는 사람을 환대하고, 또 그런 사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선발하는 학교라고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변변한 사교육도 받지 않았고, 지방 인문계 일반고를 다니며 일부 미비한 학교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에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던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것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의 속도로 타자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뜨겁고 절실할 '바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자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
>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H -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

- 고등학교 생활 중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 더 알고 싶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나요?
- 관심 있는 과목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수하였나요?
- 여러분이 생활해온 공간은 학교, 그리고 그 안의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요? 서울대학교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 선택의 기회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학교마다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고 폐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유형에 따라 교과목이 제한적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넓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 때로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물리학이 좋은데… 물리학I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물리학I 희망자가 겨우 30명뿐이라고?
생명과학I은 150명이 듣는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은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수한 학업역량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러분은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이러한 지식공동체의 일원인 서울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용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활동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나 종류의 활동이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활동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이며,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수업 등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 수업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하면서 흥미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나의 학업 역량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수업시간에 발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연습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험 · 실습 수업에도 충실히 참여합시다.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적성과 흥미도 발견하게 되고, 지적 성장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과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과제를 내주신다면 선생님들이 주시는 배움의 기회를 더 심도 있는 지식을 쌓을 도전의 기회,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기를 기회, 자신의 진짜 실력을 쌓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과수업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그 기록을 꼼꼼히 살펴 여러분의 수업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움의 과정은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어 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 **우리끼리 해결해가는 방법이 좀 미숙한 듯한데,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려요.**
- **이 분야와 관련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토론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논술 동아리 글쓰기 작품에 대한 의견 부탁드려요.**
-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 **과학 실험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지도 부탁드려요.**

학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배움을 통한 성장을 위해 펼쳐진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합시다. 공부의 재미와 맛에 푹 빠져봅시다. 아직 그런 맛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 공부해 온 여러분을 서울대학교가 기다립니다.**

>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분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모두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지루해하며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직접 다가가 참여의 기쁨을 느끼게 도우셨습니다. 성격이 소심해 수업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을 담임이 아님에도 파악하고 조용히 인도하고 배려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은 학생들 모두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주셨고 모든 학생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선생님의 쉬는 시간은 언제나 고민과 진로 상담을 하러 온 학생들로 붐볐고 저 또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교육의 성장과 에듀테크 등 교육계 기술력의 증가로 공교육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끄는 선생(先生)으로서의 본질을 잘 보여주셨던 스승님이십니다.*
>
> - 인문대학 재학생 K -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 학교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소양은 학업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다져집니다.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예비 서울대 학생 여러분이라면, 열정을 담은 학교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성을 갖춰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고등학교 생활은 무엇보다도 학업활동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고, 사려 깊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업 외에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 예술,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보이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 열정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할까요? 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한 학업 외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조금 더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협동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 대인관계,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조화로운 교우관계를 맺어가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리더십

'리더십? 난 리더십이 별로 없는데…'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 임명장만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활동, 협동학습 등에서 구성원을 배려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여러분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 **수업 중 모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 **토론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며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학교생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동아리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을 독려하여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자질도 학교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길러온 다양한 능력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있는 학교생활에 주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리더의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참된 리더의 모습은 말을 독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할 때,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들을 때,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역량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그저 앞장서서 이끌고 지시하기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잘 '듣는'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
> -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S -

05

선배들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세상을 다채롭게 보기 위한 공부
과목 선택, 진로 적합성이라는 말에 자신을 가두지 말기
내게 주어진 활동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활동
면접, 내 생각을 면접 위원과 공유하기
내 삶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독서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은 '나의 진로를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공부의 방향과 그에 따르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익히는 역량은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초석**이 되며 그 **배움의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2026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한 선배들의 진솔한 조언을 통해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의 진로 목표에 따라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이곳에 실린 선배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밑거름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열매를 맺을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옮겨진 선배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선배들의 경험담 속에서 여러분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며 여러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를 희망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도전해 보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Story 1.

세상을 다채롭게 보기 위한 공부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새내기 P

저에게 학습은 빈 종이에 첫 문장을 적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써놓은 답을 따라 적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장을 쓰고 싶은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나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이름표를 떼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공부, '어려운' 공부, '해야만 하는' 공부. 이러한 외부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은 채, 그 안에 담긴 질문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공부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묻는 쪽으로. 이미 주어진 개념을 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이 개념이 여기 존재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태어났는지를 스스로 되짚었습니다.** 때로는 교과서의 흐름을 벗어나 제 나름의 연결을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해 보며 제 안에서 다시 구성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이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덜 낯설고, 덜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을 목적인 동시에 수단인, 그 자체로 완전한 무언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습에는 이름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도구도, 시험을 위한 준비도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후배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부의 이유를 너무 서둘러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내 완전한 이유를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들, 그리고 스스로 써 내려간 답들은 분명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흔적이 쌓여,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의 문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부는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자신만의 문장을 완성해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새내기 Y

공부를 하는 이유와 방법은 모두 '이해'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데서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질문이 생겼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이해해 갈수록 사고의 폭과 깊이 역시 함께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 무엇보다 '이해'를 우선으로 두고 학습에 임했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외우기보다, 개념의 원리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지식을 응용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자주 활용한 방법은 **배운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면, 제가 제대로 이해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었고, 이미 이해한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해를 중심에 둔 학습 태도를 바탕으로 공부해 왔으며, 이 경험이 **저를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도 진심을 다하다 보면 그 경험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연히 읽은 책 한 권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게 참여한 활동이 진로를 고민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해야 할 공부는 많고, 시간은 늘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일들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간호대학
새내기 P

저는 **공부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시험을 위한 암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느꼈습니다. 제 목표로 다가가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단순한 의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공부와 함께 자신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다양한 교과 활동을 관심 분야와 연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만 머무르기보다는 다양한 교과 속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확장해 보는 경험이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과목에서는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탐구를 진행하고, 다른 과목에서는 그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며 학습의 범위를 넓히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 2학년 때 여러 주제를 경험하며 관심 분야를 탐색했고, 3학년이 되면서는 이전에 진행했던 활동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공부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 역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확실한 휴식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고, 고등학교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새내기 S

저는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영어 표현을 하나 배우고 나면 해외 영화의 맥락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힘에 대해 배우고 나서는 세상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세상이 더 다채롭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삶이 조금씩 흥미로워졌기에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좋은 입시 결과만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해나갑니다. **좋은 입시 결과를 내는 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자신이 어떤 분야를 더 알아보고 싶은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학에 진학해서 무엇을 탐구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치의학과에 진학해서 구강 내의 힘의 작용을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고등학교에서 <물리학2> 과목을 수강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구강 내 힘에 대해 탐구해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흥미를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고, 자신만의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내신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 활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종종 봤습니다. **열심히 교과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관심 있는 활동들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성적표의 숫자만으로 학생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행하는 활동에서 열정을 보여준다면 한층 더 훌륭한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Story 2.

과목 선택, 진로 적합성이라는 말에 자신을 가두지 말기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새내기 S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학년 이수 과목을 선택할 때 물리학 1, 2과목을 선택했습니다. <물리학1>은 신청자 수가 현저히 적어 1등급 인원이 2명뿐인 기피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에 남들이 하지 않는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을까 봐 초조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물리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나 가는 과정을 거치며 <물리학2> 과목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년을 거치며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과목을 모두 수강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학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세 과목 모두를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리학1> 과목과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수강한 것이 저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기피 과목이라서, 어려운 과목이어서 <물리학1>을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구강 내의 교정력과 마찰력에 대해 탐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하>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치열의 포물선 모양과 관련된 주제 탐구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을 잘 받기 어렵더라도 흥미가 있는 과목에 도전해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도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사람을 등급으로만 판단하지 않기에,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도전적으로 탐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넓은 세상에서 배움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새내기 N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흥미 분야를 찾거나 진로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대신 단순히 좋은 학과나 사회적 평판이 뛰어난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곤 합니다. 특히 정말 관심 있는 과목은 잠시 덮어놓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가산점이 있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거나 틀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이 앞으로의 인생 간판이기보다는 학문의 장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자신이 진심으로 학문을 사랑하는 학생임을, 대학교가 단순한 스펙이나 밥벌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지적 수준의 상승과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한 수단임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좋아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진로 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이목을 끄는 과목을,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인지를 고려하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두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윤리와 사상>을 통해 철학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깊은 생각을, <생활과 윤리> 과목을 통해 현실 속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공부한 학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것을 밑거름 삼아 인생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새내기 S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며 고민했던 부분들은 대체로 '진로 적합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행평가 기간이 되면 친구들과 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진로와 엮지?"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로가 정확히 뭐지?' 제 생활기록부를 보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진로가 세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 진로를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의 저는 진로가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면 흔히 말하는 '의치한약수'를 준비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중에서도 약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하고 싶은 일이 없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관련 내용을 탐구하고 공부할수록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학년 2학기에는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정치라는 분야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치외교 관련 과목과 활동을 선택하며 공부를 이어갔지만, 저는 점점 개념 자체보다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통계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대학 입시에 맞는 걸까?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3학년에 들어서며 다시 한번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끝에서 저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자라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저는 농업경제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통계적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농촌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실패를 통해 진로를 찾아왔습니다.** 맞지 않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로를 하나의 직업으로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저의 진로는 '지역 소멸을 막고, 내가 자란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경제학을 선택했습니다. **진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의 변화 속에서 저는 저 스스로의 경쟁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진로 적합성이라는 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식 없이 이 과목, 저 과목을 공부해 가며 무엇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싫은지 판단하는 감각이 예리해질수록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새내기 K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해 꾸준히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진로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학문을 배우고 탐구하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는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관심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활동과 학습 경험을 통해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기술과 정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인공지능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 흥미를 느꼈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관련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단순히 교과서 안에 있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운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며 이해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교 수업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고 스스로의 관심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탐색과 과목 선택 과정은 단순히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제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심을 확인하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제 진로에 대한 생각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융합학부
새내기 L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대단한 학습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왜 이런지 **의구심이 들었고, 그냥 그걸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의구심을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또 해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쌓여 갈수록 하나의 교과 안에 머물러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저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와 AI에 관련된 탐구를 진행하며 품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는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과 책, 공동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생활기록부에는 저만의 고민과 성장이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며, 탐구활동의 주제를 결정하는데, 엄청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전부 거창한 탐구를 하는 것 같고, 나의 활동은 너무 평범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내용을 흉내 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접했던 사소한 개념 하나,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품은 호기심을 놓치지 말고 파고들어 보세요. 조금 투박하더라도 여러분만의 땀방울과 고민이 묻어나는 탐구 과정이 잘 드러난다면 분명 서울대에서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봐 줄 것입니다.**

참고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

·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지원자격과 무관하지만 모집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반영함
·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핵심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단위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적극적인 선택과목 이수를 권장함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학부대학	광역	-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자유전공학부		
인문대학	인문계열	-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역사학부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	-
	경제학부	-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사회학과	-	-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통계학과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천문학전공	· 지구과학I, 미적분, 기하	· 지구과학II, 물리학II, 확률과 통계
	화학부		· 화학II, 미적분	· 확률과 통계, 기하
	생명과학부		· 생명과학II, 미적분	· 화학II, 확률과 통계, 기하
	지구환경과학부		· 물리학II 또는 화학II 또는 지구과학II, 미적분	· 확률과 통계, 기하
간호대학			-	·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경영대학			-	-
공과대학	광역		· 미적분, 확률과 통계	· 기하
	건설환경도시공학부		·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기계공학부		·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재료공학부		· 미적분, 기하	· 물리학II, 화학II, 확률과 통계
	전기·정보공학부		· 물리학II, 미적분	· 확률과 통계, 기하
	컴퓨터공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
	화학생물공학부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또는 물리학I 또는 화학I
	건축학과		-	· 미적분
	산업공학과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에너지자원공학과		·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원자핵공학과		· 물리학II, 미적분	-
	조선해양공학과		· 물리학I, 미적분, 기하	· 확률과 통계
	항공우주공학과		·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 지구과학II, 확률과 통계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식물생산과학부		· 생명과학II	· 화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산림과학부		-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 화학II, 생명과학II	-
	응용생물화학부		· 화학II, 생명과학II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미적분, 기하	· 물리학II, 확률과 통계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 미적분, 기하	· 물리학II 또는 화학II
	스마트시스템과학과		· 미적분	· 물리학I 또는 화학I 또는 생명과학I
미술대학	동양화과		-	-
	서양화과			
	조소과			
	공예과			
	디자인과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사범대학	교육학과		-	-
	국어교육과		-	-
	영어교육과		-	-
	독어교육과		-	-
	불어교육과		-	-
	사회교육과		-	-
	역사교육과		-	-
	지리교육과		-	-
	윤리교육과		-	-
	수학교육과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물리교육과		· 물리학II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화학교육과		· 화학II	·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물교육과		· 생명과학II	· 화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지구과학교육과		· 지구과학I	· 지구과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체육교육과		-	-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	-
		아동가족학전공	-	-
	식품영양학과			· 화학I, 생명과학I
	의류학과		-	· 화학I, 생명과학I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생명과학II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약학대학	약학계열		· 화학I, 생명과학I	· 미적분, 화학II 또는 생명과학II
음악대학	성악과		-	-
	작곡과			
	음악학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의과대학	의예과		· 생명과학I	· 생명과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첨단융합학부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또는 물리학I 또는 화학I 또는 생명과학I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	-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왜 지정되었나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각자가 지닌 적성과 진로 목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공부의 방향과 그에 따르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안내합니다.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핵심 권장과목 및 권장과목)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부)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모집단위별 **핵심 권장과목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필수 연계 과목이며, 권장과목은 모집단위 수학을 위해 교육과정에서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아울러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학과(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이수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나요?

· 네,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지원자격과 무관하지만 모집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반영**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각 학과(부)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학과별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의 이수 내용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 서울대학교는 **고교 재학 중 학생의 진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며 학생이 수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나 운영 여건이 다양함을 알고 이를 평가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미이수한 경우라도 학생이 이수한 다양한 선택과목 내용에 나타나는 적극성과 충실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Story 3.

내게 주어진 활동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활동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새내기 P

고등학교 3년은 수많은 선택과 질문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를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은 활동은 고등학교에 들어와 처음 진행했던, '혐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의 문제의식은 단순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거리 두고, 쉽게 단정 짓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접 교설하기보다, 행동을 먼저 바꾸면 어떨까'라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넛지 이론을 활용해 작은 개입을 설계했습니다. 거창한 캠페인 대신,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마주치는 일상적인 물건(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냅킨)에 메시지를 담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혐오 표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이 직접 대응을 실천하는 '반 대항 챌린지'로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을 거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바꾸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왜 특정한 감정을 느끼고, 왜 그렇게 판단하며, 어떤 순간에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지. 이 질문들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사람에 대해, 마음에 대해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인간을 이해하는 일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새내기 K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활동은 교내에서 진행했던 '자유 주제 논설문 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제도, 내용도 정해진 것 없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아서 제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 이름만 듣는다면 학교에서 자주 있는 수행평가 혹은 활동 중 하나이고 어째서 '가장 성장시킨 활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 활동이 주제 하나 정해져 있지 않은, 오로지 학생의 태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활동이라는 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짧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접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비울 수 있다는 것 이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것들을 말이죠. 그 외의 시간에는 공부하랴, 탐구활동 하랴, 금세 하루가 흘러갑니다. 빠르게 흩어지는 것들 사이에서 혼자서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앞선 활동을 통해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건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처분되는 가축들, 그 안에서의 수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흔히 수의사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동물을 살리는 일과는 정반대되며, 나름 유명한 주제였으나 알면서도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다루길 꺼리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기에 조사해야 할 내용도 많았고, 현실 직시를 목표로 서슴없는 표현이 들어간 영상이나 글도 많아 조사할 때 가장 힘들었던 활동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게 또렷이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다루며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은 그저 글 쓰는 실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꿈꾸는 한 명의 학생이자 하나의 인격체로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저를 가장 성장시킨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새내기 S

저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교내 과학 프로젝트 연구 활동을 진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내 활동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염두에 둔 주제로 탐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주변 사람들은 무의미한 활동을 왜 하냐며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취미를 깊게 탐구한 경험은 저의 진로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경험을 계기로 치의학 공부를 꿈꾸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취미인 자동차에 대해 탐구하면서 마찰력과 같은 힘들에 대해 알아보고 나서, 책과 뉴스 등을 보며 힘이 우리 신체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워 치의학과를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하고 싶었던 탐구가 아니라, 남들이 하는 주제를 그대로 따라 했었다면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때까지 제가 대학에 진학해서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은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교내 과학 프로젝트 연구라는 활동을 통해서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할 수 있었기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꼭 참여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이 자연스레 드러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분들이 흘린 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새내기 K

저는 2학년 때 진행했던 학급 특색 멘토링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멘토링 활동은 학급 친구들이 멘토와 멘티 역할을 맡아 멘토가 멘티의 학습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특정 과목을 맡아서 설명을 진행하기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멘토를 맡아 가계도 분석법과 유전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생명과학Ⅰ, Ⅱ 내용의 핵심 개념을 담은 필기 노트를 멘티들에게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물리학 멘티 역할을 수행하며 역학 문제를 수식과 그래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확실히 **혼자 공부할 때 이해하는 수준에 비해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학습 수준이 훨씬 높았기에 멘토 활동을 하며 생명과학의 문제를 푸는 원리와 그 원리가 도출되는 이유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공동의 목표 아래 꾸준한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기에 이 활동이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며 보완시킨 생명과학 지식들과 남들 앞에서 많이 발표해 본 경험들이 추후에 서울대학교 면접 준비를 할 때 든든한 초석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Story 4.

면접,
내 생각을 면접 위원과 공유하기

인문대학 인문계열
새내기 P

면접은 생활기록부 속 내용을 거창하게 꾸며내고, 이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볼 기회를 얻었다면,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면접은 여러분이 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거짓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상 질문을 방대하게 뽑아서 준비하는 것, 면접 지도 학원에 목매는 것으로 여러분의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대한 생활기록부를 체화시키고, 제가 한 활동들을 복기하는 데 면접 준비 시간을 거의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나만의 이야기할 때 비로소 떨림 없이 자신감 있게 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체화시킨 생각을 말로 내뱉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면접 학원의 도움 없이, 학교 선생님들의 모의 면접 지도로 면접을 준비했었는데 오히려 **3년간 저를 봐오신 분들께서 면접 지도를 해주시니,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수용할 수 있었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새내기 J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는 것을 교수님과 공유한다고 생각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생기부에 적힌 활동을 외우고 대본을 쓰며 면접관님이 하시는 질문이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한 말이 생각이 안 나면 답변이 끊겼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면접 자체를 망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저 말을 들은 이후로 면접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활동과,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단순히 교수님께 전하는 것이고, 교수님 또한 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궁금해 질문을 던지실 뿐이라는 것을 깨닫자, 면접 준비가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저의 언어로 표현하자 면접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가서도 이런 태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준비하지 않은 활동을 물어보셔서 순간 당황했지만, 평소 면접을 준비할 때처럼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차분히 말을 이었고, 그 대답에서 교수님들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 나를 설명해 드리겠다는 태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문대학 철학과
새내기 P

서울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전형 인문학, 사회과학 기출 제시문을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제시문 면접의 경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을 논리적이고 전달력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또한, 일반전형 면접은 제시문의 내용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시문의 구성요소를 최대한 꼼꼼히 분석하고 답변에 모두 활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저만의 답변 구조를 여러 가지 준비해 둔 것이 전달력을 높이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택한 키워드의 정의를 중심으로 논변하는 구조, 두 가지 입장을 비교 · 대조하는 구조, 구체적인 사례를 포괄적 어구로 축약하여 강조한 후 설명하는 구조 등을 여러 기출 문제들을 활용하여 제시문이나 질문의 성격에 따라 어떤 구조가 가장 적절할지 익혔습니다.** 그리고 한 기출문제라도 3번 정도 반복해 보며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 여러 방식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인문학 제시문에 비해 사회과학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후 일주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 흥미로운 제시문을 많이 접해 면접을 위한 공부 시간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새내기 K

서울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는 수학 구술면접의 특성에 맞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전 기출문제를 풀어 보며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파악하려고 했고, 문제를 풀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개념이나 오래전에 배워 기억이 흐려진 내용은 다시 복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면접에서는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푼 뒤 스스로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혼자서 연습하기도 했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실제 면접과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며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문제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는 데 점점 익숙해질 수 있었고, 실제 면접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풀이를 믿고 설명하는 자신감이라고 느꼈습니다. 실제 면접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진행되었고, 제가 문제 풀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면접관께서 이를 듣는 분위기였습니다. 준비해 간 문제를 모두 설명한 뒤에는 마지막으로 컴퓨터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 인상에 남았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새내기 Y

저는 3학년 여름방학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면접부터 대비한 셈입니다. 생명과학부에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고,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면접 준비보다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제시문 면접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과 개념 간의 융합 및 응용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과학1>, <생명과학2> 교과서를 다시 읽으며, 심화 내용을 배우느라 소홀해졌던 <생명과학1>의 개념이나 <생명과학2>의 생소한 과학 용어 등을 꼼꼼하게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숙지한 후, 공개된 기출 문제를 통해 모의 면접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능력뿐만 아니라 면접관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실전처럼 45분간 문제를 푼 후, 학교 선생님 앞에서 15분간 답변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녹화한 영상을 돌려보면서 **두루뭉술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답변의 구성이나 말하는 자세 등을 다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반복적인 연습 덕분에, 실제 면접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의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자신이 준비한 최선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면접관들께서 차분하고 친절하게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 테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Story 5.

내 삶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독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새내기 Y

부디 **독서를 '해야 할 일'이나 '해치워야 하는 일'로 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책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는 활동이라 미뤄두기 쉽지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독서는 삶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 고민하던 문제의 답을 찾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독서는 지식을 쌓기 위한 도구를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각자 다르게 느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다듬어지고 자연스럽게 사고의 폭도 넓어집니다. **이렇게 쌓인 독서 내공은 오래 남아서 소중한 삶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인문대학 철학과
새내기 P

여러 사람들이 추천하는 도서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보고, 그 도서로 하여금 촉발된 궁금증을 따라가면서 읽어보는 것, 그냥 흥미에 의해 읽는 것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독서한 것이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선 감상을 기록하며 읽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록의 양이 꼭 많을 필요는 없고, 각 챕터별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기억하고 싶은 만큼만 적당히 메모하는 게 마음의 양식으로 오래 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독서에 몰입할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데, **수행평가나 교과 외 활동 시간에 성실히 독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 급하면 인터넷이나 AI 등을 활용해 독서한 척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는데, 독서 활동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직접 읽으며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췌독이라도 좋습니다. **직접 독서하는 경험을 조금씩 쌓아둔 것이 나중에 교과 외 활동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간호대학
새내기 P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독서 방법은 **'한 권의 책을 자신의 질문으로 확장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기보다, 책이 던지는 문제를 자신의 경험이나 진로와 연결해 다시 탐구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떠올린 질문을 이후 탐구 활동으로 발전시키며, 독서가 진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권을 깊이 읽고, 그로부터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어 가는 독서가 더욱 의미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 온 학생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 온 학생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장해 온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간혹 특별한 재능과 활동이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내신 성적 등급 점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평가는 학교 안에서 꾸준한 성취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이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니라 학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 인성을 길러주는 모둠 활동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활동 안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서울대학교의 전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선배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의 목소리를 빌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책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새내기
P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계속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공부조차도 '내가 이해했는가'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쌓은 것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정작 스스로에게는 잘 남지 않았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또한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비교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보다 앞서있는지, 뒤처져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방향 자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느낀 것은, 중요한 것은 **남들과의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저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붙들고 있는 질문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비교보다 이해하려는 시선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타인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려 하기보다, 스스로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지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생명과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새내기
L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경상북도 한 군지역의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늘 스스로를 의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우물 안 개구리일 뿐이야.' '서울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2학년 2학기 국어 시험에서 89점을 받았을 때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선생님께 찾아가 정답에 대해 따졌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하나로 그렇게까지 흔들렸습니다. 사물함 앞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저는 불안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감정만 없었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불안 덕분에 저는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계속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불안하다면, 그 감정을 없애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안은 '더 잘하고 싶다',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 마음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를 쉽게 한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스스로를 낮추며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40일 정도 앞두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에서 '나도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로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생각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불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성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여러분이 더 나아가고 싶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가능성을 스스로 막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지나며 가장 크게 배운 점입니다.

의과대학 의예과 새내기

S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26학번으로 서울대에 들어온 새내기입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지금까지 많은 후배들을 만나 왔지만, 모두가 제 대입 결과에 대해 그냥 갈 사람이 갔고,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고,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글을 읽고 있는 후배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만하지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친구에 비해 그 효율이 안 좋을 수 있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누군가는 그 효율이 너무 좋아서, 자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모두에게는 본받을 만한 곳이 있고,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교적 공부를 잘했지만, 공부를 못하더라도 지혜로운 친구가 있고 다정한 친구가 있으며 친화성이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친구들의 본받을 만한 곳을 본받고자 노력한다면, 저는 당신이 큰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서울대에 입학하면 좋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지인들도 모두 기뻐하고, 저는 모르는 형의 친구의 친구의 동생에게까지 소문이 돌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교일 뿐입니다.** 서울대 내에서도 학교 평판에 맞지 않는 친구가 있고, 이를 뛰어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신이 서울대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해에, 또는 그다음 해에, 또는 더 나중에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 저에게 본받을 만한 점을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첨단융합학부 새내기

L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은 당연히 힘들고 외롭습니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하나하나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언젠가 한 번 무기력함은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며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입시라는 마라톤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이 오히려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맛있는 음식도 챙겨 먹고,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세요. 소나기가 내린 후에는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고생 끝에도 반드시 무지개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새내기

P

제가 고등학생 시절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스스로 자신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입시를 하는 누구나 흔들리기 쉬운 환경에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저를 떠올려 보았을 때, 저도 '이렇게 해도 되나?' '남들은 저렇게 하던데…'처럼 스스로를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성장시켜 준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모두가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것을 알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생을 요구하기보다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고민하고 움직였느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돌아간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개성과 독창성을 드러내는 순간들**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로 힘들 때는 비교의 대상을 어제의 나로 바꾸어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새내기
C

서울대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비교적 폭넓게 평가하는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내신 성적의 절대적인 수치보다, 그 성적이 만들어진 과정과 학습 태도, 그리고 전반적인 성장 가능성을 함께 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안심하기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실제로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성적이라는 수치에 매몰되기 쉽지만, 결국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 수치보다 자신의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저 역시 **입학 이후에 느낀 점은, 대학이라는 환경 자체가 무언가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결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역량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이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가 특별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준비 과정에서 불안한 순간이 많았고,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던 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공부와 준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멀리 있는 결과만 보면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하루 단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데 집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연과학대학
물리 · 천문학부
새내기
K

저는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력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험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 문제는 이미 풀어봤던 유형이야', '이 개념은 다 알고 있어'라고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수능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항상 1-2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수학>과 <지구과학1>, <물리학2>의 경우에는 항상 1등급이 나와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에서는 역설적으로 국어에서 가장 우수한 성취를 얻었고 수학과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평소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정시에는 미련이 남지 않지만, 수능을 통해 인생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평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수능장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문제를 풀었지만, 수학과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잘못된 태도로 시험에 임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입시를 끝마쳐 관악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새내기
Y

너무 잘하려고만 애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도움이 될까?', '이 활동이 좋아 보일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겪었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은 '내가 정말 궁금해서 한 것', '진심으로 즐기며 한 것'**들이었습니다. **공부도, 활동도 결국은 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설레고 몰입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느리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 또한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입니다. 지금의 노력과 고민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분명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간호대학
새내기
P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후배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의 나를 더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많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불안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누가 더 화려한 스펙을 쌓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해왔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든, 면접이든 결국 전달되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고민해 왔는지를 스스로 납득 할 수 있을 때, 그 진정성은 자연스럽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불안한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고, 가끔은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각자 다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분명 의미 있는 성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신의 속도를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새내기
K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결과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기보다 질문하고 탐구하려는 태도가 학습을 더 깊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부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체육 활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공부만을 계속하기보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잠시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힘을 얻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학교생활 자체도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한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앞으로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새내기
N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정답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자신을 1학년 때 정한 '진로'라는 감옥에 가두며 관심사와 맞지 않더라도 스스로 진로의 일관성을 '정답'이라고 믿으며 얽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비교하며 대다수가 따르는 길 또한 '정답'이라고 믿으며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는 본인만의 특색을 지울 뿐더러 스스로 자신을 남과의 비교로 빠뜨릴 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진로가 바뀔 때는 이것이 맞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어떨 때 흥미를 느끼고 누구보다 진지해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입시는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정답을 찾으려 조급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대학
인문계열
새내기
P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기도, 짧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압박하기보다는 왜 이 길을 가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정말 많은 길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인문학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군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3년 동안 두 가지를 준비하며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재는 인문학에 대한 큰 포부를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왔지만, 군인이라는 길을 준비하면서 했던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준비를 하며 자연스레 여러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본인이 했던 노력들을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말단의 부분이라도 성장한 자신을 기대해 보세요. 또한, **성적이나 결과뿐만 아니라, 책 한 권을 깊이 있게 읽고 고민했던 경험,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탐구했던 경험들이 훨씬 오래 남고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가능성을 넓혀준다는 점을 믿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근차근 나아가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쌓아가는 시간이 결국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새내기
K

마냥 서울대에 가야지, 생각한다면 막막하게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울대도 결국에는 수많은 대학교 중에 하나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시절 동안 천천히 찾아보세요. 고민하고 생각한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서울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문제집의 정답을 맞히는 시간보다 **'나는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입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깊이를 만들고,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이 합격통지서보다 훨씬 더 오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이 소중한 성장의 시기를 불안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서울대는 특별한 천재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걸으며 고민해 온 이들에게 늘 열려있는 곳이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민이 여러분을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대학에서는 단순히 서류의 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면접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아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란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길 응원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관악의 교정에서, 여러분과 반갑게 인사 나눌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Q.1 수시모집에서 서류평가 방법이 전형마다 다른가요?

✔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은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이 있습니다. 이 세 전형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이 서류 외에 평가에 반영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세 전형의 차이점은 지원자격에 있으며, 서류평가 방법과 기준은 같습니다.

Q.2 수시모집에서 여러 개의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있나요?

✔ 우리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두 가지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모집단위에도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전형 혹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등에 함께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개 전형의 한 개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 수시모집 지원 자격과 교과이수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이수기준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육과정 내에서 폭넓은 교과를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가능한 지원시점 이전까지 고른 교과목을 이수하여 고른 학업소양을 갖추기를 권장합니다.

Q.4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지원자를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야 하나요?

✔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 2명이 지원할 수 있으며 추천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천 권한은 소속 고등학교장에게 있으며,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5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는 정시모집에서는 전혀 선발하지 않나요?

✔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은 전형별 선발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에 따라 수시모집만 실시하거나 일부 전형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정시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합격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악대학을 제외하고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Q.6 서류평가에서는 교과성적을 산출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성적을 산출하는 공식이나 보정점수를 주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Q.7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 정해진 모습은 없습니다.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른 동일과목 수강자가 적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합니다. 즉, 선택한 과목의 수준과 수강자 구성, 인원으로 인하여 단순히 등급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유리한 과목만 이수하여 결과적으로 수치만 좋게 받으려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8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해서 석차등급이 다소 낮아지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과성적을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수치만 고려하여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과 함께 수강한 학생들의 구성,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진학 목표를 고려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노력을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9 모집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의 성적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교과성취도(내신)의 3년간 이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그 과목에서 성취한 등급, 원점수,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공부한 내용과 그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여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전공연계 교과이수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목의 이수 여부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Q.10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여가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Q.11 수시모집에 지원하는데 반드시 수능을 응시해야 하나요?

✔ 지역균형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 중 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대학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모집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시모집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제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능응시영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Q.12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단순 정답, 단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교과 지식과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알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연습은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제풀이나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독서, 글쓰기, 토론, 발표,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교육 · 북한이탈) 면접은 제출서류를 내용을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확인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면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웹진 「아로리」에는 기출 제시문과 면접 우수자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로리 사용 설명서

「아로리」- 입학본부 웹진(https://snuarori.snu.ac.kr)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폭넓고 다양하게 전달하여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웹진입니다. '아로리'란 말의 뜻이 친구, 지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친근하고 손쉽게 아로리를 이용하여 입학정보, 대학 생활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교 생활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인터뷰 내용으로 고등학교 생활담과 현재 대학 생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들의 서재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읽었던 도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 이슈이슈!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 이야기와 우리 교육계의 쟁점 사안에 대한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입학 안내	전형안내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입학사정관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서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모집단위에 지원했던 선배들의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창고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자료와 입학본부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를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면접 안내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안내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을 안내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들려주는 면접 이야기	서울대학교 면접 우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	관악로 1번지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서울대학교의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 소개	서울대학교 단과대학과 소속 학과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메뉴입니다. 전공 소개 동영상을 통해 생생한 전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전공, 나의 진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s://admission.snu.ac.kr

webzine 아로리
https://snuarori.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0동 4층 입학본부 (우)08826
Tel. 02.880.5022(서류제출 확인, 지원자격 관련 문의)
02.880.6974~6(서류평가 관련 문의)
Fax. 02.873.5009